

총칭문의 의미론과 차별론

미즈타니 료스케 (규슈대학)

본 발표의 목적은 총칭문의 의미론적 분석과 차별론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고, 총칭문에 대한 표출주의적 의미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총칭문이란 수량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일반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문장으로, ‘까마귀는 까맣다(ravens are black)’, ‘오리는 알을 낳는다(ducks lay eggs)’와 같은 문장이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수량을 명시한 문장, 예를 들어 ‘거의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most ravens are black)’나 ‘몇몇 오리는 알을 낳는다(some ducks lay eggs)’ 등은 총칭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칭문은 언어철학의 연구대상으로써 흥미로울 뿐 아니라 차별론의 관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1. 총칭문의 의미론과 차별론의 관련성

1.1. 총칭문의 의미론

총칭문이 언어철학의 연구대상으로써 흥미로운 이유는, 총칭문을 의미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철학·언어학 학계에서 가장 널리 지지받는 의미론은 진리조건 의미론이다. 진리조건 의미론이란,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의 진리조건을 명확히 하면 된다는 논리에 기반한 의미론이다. 진리조건이란, ‘참이다(진짜다, 맞는 말이다)’라고 평가되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The earth is round.’라는 주장에 대해 ‘맞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조건은 지구가 둥근 것이다. 즉, ‘The earth is round.’의 진리조건은 지구가 둥근 것이다. 이렇게, 문장의 의미는 그 진리조건의 관점에서 명확해질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진리조건 의미론이다.

그러나 총칭문의 진리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총칭문은 양에 관한 함의가 일정하지 않아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개는 포유류다’라는 문장은 예외 없이 모든 개가 포유류임을 나타낸다. 한편, ‘오리는 알을 낳는다’라는 문장은 예외 없이 모든 오리가 알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고작 절반 정도의 오리가 알을 낳지만(알을 낳는 오리는 암컷 오리 뿐이다), ‘오리는 알을 낳는다’는 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진드기는 라임병의 매개체이다’라는 문장은, 실제로 라임병의 병원균을 보유한 진드기는 진드기 전체에서 겨우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참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총칭문은 양에 관한 함의가 개개의 문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진리조건도 개개의 문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총칭문은 형태의 단순성과는 달리 의미론적 분석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1.2. 총칭문의 차별론

한편, 최근 들어 총칭문은 차별론의 관점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총칭문이 ‘여성’, ‘남성’, ‘이슬람교도’, ‘흑인’, ‘일본인’, ‘한국인’처럼 사회적 카테고리에 대해 쓰이는 경우에 차별·편견이 조장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Haslanger(2011)는, ‘여성은 순종적이다’, ‘흑인은 폭력적이다’와 같이 편견을 표명하는 듯한 발언이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사회의 차별적 구조가 조장되고 영속화된다고 지적했다.

총칭문의 의미론과 총칭문을 둘러싼 차별론은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문맥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Haslanger(2011)의 분석에서는, 총칭문의 의미론은 차별론의 관점에서는 간접적으로만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본 발표에서는 Haslanger(2011)와는 달리, 총칭문의 의미론적 분석이 차별론의 관점에서도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3. 의미론과 차별론이 관련되는 두 가지 측면

필자는, 총칭문의 의미론적 분석은 차별론이 지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통계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총칭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라는 총칭문의 주장에 반론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하는 여성이 여성 전체의 80% 이상이라거나, 수학을 잘하는 남성보다 수학을 잘하는 여성이 많거나 하는 수치를 통계적 사실로서 제시해야 한다고 흔히 생각한다. 이는 타당한 전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이것이 타당한 전략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지금까지 제시된 바가 없다. 총칭문과 통계적 사실 언명은 의미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서술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Asher & Morreau 1995)에도 불구하고, 왜 총칭문의 반론으로써 통계적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유효한가? 또한, ‘수학을 잘하는 여성이 여성 전체의 80% 이상이다’라는 주장과 ‘수학을 잘하는 남성보다 수학을 잘하는 여성이 많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두 가지 모두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왜인가? 이렇듯 총칭문의 의미론적 분석은 차별론의 문제, 즉 차별적 언어행위에 대한 반론으로써 무엇을 제시하면 좋을지, 그 이유는 왜인지를 해결하기 위한 큰 발판이 될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총칭문을 사용함으로써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다(Cimpian et al. 2010; Caplen & Dever 2019). 심리학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교적 약한 통계적 증거에 기반해 총칭문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총칭문에서 상당히 강한 통계적 결론을 추론하는 경향도 있다. 즉, 사람들은 70%의 K가 F임을 들은 것만으로 총칭문 ‘K는 F다’를 추론하며, ‘K는 F다’라고 들었을 때는 90%의 K가 F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총칭문은 근거가 박약한 주장을 널리 퍼뜨리는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총칭문이 편견 조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경향성이 총칭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에 기반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언뜻 보아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총칭문의 의미론적 성질과 통계적 사실의 관계성을 해명하는 것은 편견 조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총칭문을 차별론의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총칭문에 대해 적절한 의미론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총칭문의 의미론 - 기존 연구

2.1 보통 세계 접근법과 그 문제점

애셔와 모로(Asher & Morreau 1995)는 총칭문의 의미론을 보통 세계라는 개념에 호소하여 구축하는 방법을 시도했다(그들의 접근법을 이하 ‘보통 세계 접근법’이라 하겠다). 보통 세계 접근법에 따른 의미론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¹⁾

1) 단, 각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llbracket \cdot \rrbracket$ 는 가능 세계에 상대적으로 문장을 인수로 하여 진리치를 돌려주는 함수이다. $\| \cdot \|$ 는 문장을 인수로 하여 명제(=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가능 세계의 집합)를 돌려주는 함수이다(즉, $\| \phi \| = \{w \mid \llbracket \phi \rrbracket^w = 1\}$). D 는 논의 영역이다. N 은 세계와 명제를 입력하면

$$\llbracket \text{Gen } x [Kx] [Fx] \rrbracket^w = 1 \Leftrightarrow \forall x \in D: \forall w' \in N(w, \llbracket Kx \rrbracket): \llbracket Fx \rrbracket^{w'} = 1$$

쉽게 말하면, 이 분석의 요지는 ‘K는 F다’라는 문장의 진리조건은 ‘어떠한 개체 x에 대해서도 x가 K라면 보통 x는 F다’라는 것이라고 설명 가능하다. 총칭문을 일종의 전칭문으로서 이해한 것이다. 이 의미론에 따르면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문장은 ‘어떠한 x에 대해서도 x가 까마귀라면 보통 x는 까맣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분명 직관에 부합한다. 알비노 까마귀처럼 까맣지 않은 까마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마귀는 까맣다’는 문장이 참인 이유를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미론에는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레슬리에 따르면, 보통 세계 접근법은 ‘오리는 알을 낳는다’와 같은 문장의 의미를 적절히 예측할 수 없다. 보통 세계 접근법으로는 ‘오리는 알을 낳는다’가 참이면 ‘오리는 암컷이다’도 참이라는 예측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오리는 알을 낳는다’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보통 세계 접근법에 따르면 어떠한 x에 대해서도 x가 오리라면 보통 x는 알을 낳는다. 알을 낳는 오리는 암컷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떠한 x에 대해서라도 x가 오리라면 보통 x는 암컷이라는 것이 성립한다. 보통 세계 접근법에 근거하면, 결국 ‘오리는 암컷이다’가 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2.2 레슬리의 접근법과 그 문제점

레슬리의 관점에서는 총칭문의 의미론은 오로지 ‘인용부 해제적’이어야 한다. 즉, 총칭문 ‘K는 F다’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K가 F인 것이라고 레슬리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거의 설명력이 없어 보인다. 애초에 총칭문의 의미가 불명료한데 그 총칭문을 사용한 진리조건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 레슬리는 이러한 관점을 주장하는 것일까?

레슬리에 따르면, 총칭문은 ‘인지 시스템이 가지는 일반화 시의 디폴트 모드(the cognitive system’s default mode of generalizing)’(Leslie 2008: 23)와 관련이 있다. ‘인지 시스템이 가지는 일반화 시의 디폴트 모드’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시적인 정보수집 메커니즘으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 우리 인간은 소수의 예를 관찰함으로써 일반 규칙을 도출하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레슬리는 어떤 사람이 ‘K는 F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지 시스템이 성질 F를 대상 K로 일반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총칭문의 진리조건이 복잡하고 모호해 보이는 이유는 이 인지 시스템의 작동의 복잡성 때문이다. 이 복잡성을 의미론에 대입하려고 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레슬리가 총칭문의 의미론은 인용부 해제적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3. 표출주의

하지만 총칭문의 의미를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까? 필자는 진리조건 의미론을 대신할 이론으로서 표출주의(expressivism)라는 입장을 채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출주의란, 문장의 의미를 그 문장의 발화로써 표출되는 심적 상황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언어철학상의 이론이다. 원래 표출주의는 ‘좋다’거나 ‘해야 한다’ 등의 가치어·규범어

그 명제가 성립할 때 그 세계의 관점에서 보통 성립하는 것이 모두 발생하는 세계의 집합을 돌려주는 함수이다. 그리고 x 는 대상 x 의 이름을 나타낸다. 또한, 총칭문은 일종의 양화표현이라는 일반적인 통어론적 가정에 기반하여, 총칭문의 논리형식은 ‘Gen $x [Kx][Fx]$ ’로 나타내기로 한다.

에 대해 진리조건 의미론을 대신할 이론으로서 제안된 이론인데, 필자는 가치어·규범어뿐만 아니라 총칭문에 대해서도 표출주의적 분석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표출주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 ϕ ’라는 발화로 표출되는 심적 상황은 ‘ ϕ 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문장 ‘ ϕ ’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 ϕ 라는 판단’이 어떤 심적 상황인지를 설명하면 충분하다(Gibbard 2003).

한편 레슬리는 총칭문과 총칭문에 관련된 인지 시스템에 대해 고찰할 때, 기본적으로 “‘K는 F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슬리는 표출주의적인 고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실 레슬리는 그의 연구에서 ‘표출(express)’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만약 대상 K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화자의 디폴트 메커니즘이 성질 F를 대상 K로 일반화한다면, 화자는 이를 총칭문 ‘K는 F다’로써 표출할 것이다. (Leslie 2008: 22)

이 한 문장은 사실상 표출주의에 의한 총칭문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듯, 레슬리의 고찰은 실질적으로 표출주의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조건 의미론이 아닌 표출주의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 주저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표출주의를 채용함에 있어, 위에 인용한 한 문장으로 인해 비로소 총칭문의 의미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레슬리처럼 진리조건 의미론에 구애되어 인용부 해제적 의미론을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4. 앞으로의 과제

통계적 사실과 총칭문의 의미 사이의 대응관계에 대해 표출주의적 관점에서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총칭문을 둘러싼 차별론을 완전히 전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참고문헌

- Asher, Nicholas & Morreau, Michael (1995). What Some Generic Sentences Mean. In Greg N. Carlson & Francis Jeffry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300-339.
- Cappelen, Herman & Dever, Josh (2019). *Bad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Cimpian, Andrei; Brandone, Amanda C. & Gelman, Susan A. (2010). Generic Statements Require Little Evidence for Acceptance but Have Powerful Implications. *Cognitive Science* 34 (8):1452-1482.
- Gibbard, Allan (2003). *Thinking How to Liv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slanger, Sally (2011). Ideology, Generics, and Common Ground. In Charlotte Witt (ed.), *Feminist Metaphysics*. Springer Verlag. pp.179-207.

(번역책임자:양남윤)